



29일 오후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 경기에서 KIA 윤석민이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타이거즈 17년만에 30세이브...KIA 5강 불씨 '세이브'

〈1998년 임창용 34S〉

윤석민 2.1이닝 무실점...6-4로 롯데 추격 물리쳐

4실점 임준혁 7경기만에 9승...필 100타점 돌파



윤석민이 17년 만에 '호랑이 군단'의 30세이브 명맥을 이으며 5강 불씨를 살렸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윤석민의 활약으로 6-4 승리를 거뒀다. 앞선 26일 SK전에서 3이닝 세이브를 기록했던 윤석민은 다시 한번 긴 이닝을 책임지면서 30세이브 고지를 밟았다.

1998년 34세이브를 기록했던 임창용에 이어 17년 만에 기록된 타이거즈의 30세이브다. 해태 시절을 포함하면 1993년 선동열(31세이브), 1995년 선동열(33세이브)까지 4번째, KIA출신으로는 첫 30세이브의 주인공이다.

KIA가 상대의 실책으로 초반과 뒷심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 1회 2사에서 김주

찬과 브렛 필의 연속 안타로 KIA가 선취점을 올렸다. 롯데 선발 송승준의 폭투에 이어 포수 강민호의 송구실책이 나오면서 2-0. 2회 1사 2루에서는 신종길의 적시타에 이어 유격수 문규현의 포구 실책이 나왔다. 김주찬의 희생플라이로 4-0을 만들었다.

4회 베테랑들의 '침착함'이 아쉬웠다. 4회초 고영우의 볼넷에 이어 신종길의 내야안타가 나오면서 송승준이 강판됐다. 그러나 구원 등판한 심수창에게 오준혁이 삼진을 당한 뒤, 김주찬도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브렛 필이 고의 사구로 걸어나가면서 베이스가 꼭 잡지만 이범호의 방망이마저 헛돌면서 KIA는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이어진 4회말 수비, 선발 임준혁이 투 아웃 이후 급격히 흔들렸다. 아두시와의 풀카운트 승부에서 바깥쪽으로 잘 찰러넣은 공이 불 판정을 받으면서 첫 볼넷을 기록했다. 이후 임준혁은 최준석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며 흔들렸고 안중

열·황재균·오승택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4-4 동점을 허용했다.

침착함이 아쉬웠던 4회였지만 임준혁은 5회 1사에서 병살타로 이닝을 마감했고, 6회에는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이범호의 1타점 2루타로 5-4로 앞선 7회 1사 1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췄다.

볼펜진이 임준혁의 9승 도우미가 됐다. 임준혁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한승혁이 문규현을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투아웃을 만들었다. 심동섭을 투입한 KIA가 손아섭을 고의사구로 내보내면서 1루를 채웠고, 바로 윤석민을 가동시켰다. 대타 김주현을 포수 파울 플라이로 잡아낸 윤석민이 아두치에게 중전안타를 맞았지만 탈삼진 두 개를 더하며 8회를 마무리했다. 윤석민은 롯데 3루수 황재균의 실책으로 6-4가 된 9회에는 연속 삼진에 이어 좌익수 플라이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우면서 승리를 완성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6연승하고 SK 패하길 기다릴 수 밖에...

좁은 5강 길. 가능성은 남아있다.

KIA가 29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6-4 승리를 거두며 6위 한화와 승차 없는 7위가 됐다. 5강 마지막 희망을 살려두기는 했지만 이날 5강에 가장 근접한 SK가 kt를 상대로 10-0 대승을 거두면서 KIA의 '가을잔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한화도 선두 삼성에 7-6 진땀승을 거두며 5강 가능성에 있고, 롯데에게도 5강 경우의 수는 남아있다.

SK가 이날 승리로 사실상 8부 능선을 넘기는 했다. 67승으로 가장 많은 승수를 쌓은 SK는 남은 경기에서 4연승(승률 0.500)을 거두면 계산기를 두드린 필요도 없이 와일드 카드를 거머쥔다. SK는 LG, 두산과 최종전 그리고 NC와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SK가 잔여경기에서 3승1패(승률 0.429)를 기록할 경우 KIA에게만 싹날 같은 희망이 남는다. KIA가 남은 6경기 모두 쓸어담을 경우 승률이 0.4930이 되면서 SK를 넘게 된다.

KIA 5강 진출 경우의 수

SK 4전 전승맨 '물거품'

KIA 5승1패 vs SK 2승2패

KIA 4승2패 vs SK 1승3패

KIA 3승3패 vs SK 4연패

하는 2승2패(0.4722) 이상을 통해 4강에 접근할 수 있다.

5위 SK에서 8위 롯데까지 모두 4강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계산은 복잡하다. 후보군들의 맞대결은 30일 KIA와 롯데전을 빼고는 없다. 각 팀들은 각자의 길을 부지런히 가야한다.

잠실의 한자봉 두 가족 LG와 두산이 5강 싸움의 특급 조연이 될 전망이다. 불타는 타격으로 '고춧가루 부대'가 된 LG와 넥센과 3위 싸움을 하고 있는 두산이 각각 5강 후보군들과 가장 많은 4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여기에 LG와 두산이 나란히 30일, 10월1일 5위 SK를 만나는 만큼, 두 팀이 5강 확정 시기를 정하는 키가 될 전망이다.

한편 30일 KIA는 박준표를 선발로 해 사직에서 롯데 린드블럼을 상대한다. 문학에서는 류제국(LG)-세든(SK), 대전에서는 클로이드(삼성)-로저스(한화)가 만나 5강 전장을 이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

KPGA 매치플레이 내달 1일 개막

이경훈·최진호·이수민 등 상금왕 경쟁도 후끈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의 유일한 매치플레이 대회가 10월 1일 막을 올린다.

경기도 용인의 88컨트리클럽에서 나흘간 펼쳐지는 이 대회(총상금 8억원·우승상금 2억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64명의 선수가 출전, 스트 로크 플레이와는 다른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기대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이기상(29·플레이보이클럽)이다. 2006년에 프로에 데뷔한 이기상은 개인 통산 2승을 모두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거뒀다. 2009년 동부화재 프로미 대회에서 첫승을 거둔 이기상은 지난해 만성웨어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매치플레이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다. 올 시즌 상금 랭킹 116위로 밀린 이기상이 이번 대회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금왕 경쟁도 치열하다. 이경훈(24·CJ오쇼핑)이 상금 3억1500만원으로 1위에 올랐지만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금 랭킹 2위 최진호(31·현대제철)를 비롯해 이수민(21·CJ오쇼핑), 문경준(33·휴센), 이태희(27·OK저축은행) 등 시즌 상금 2억원을 돌파한 선수들의 역전 레이스가 기대된다.

9월 21일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린 예선전에서는 아마추어 2명을 포함한 32명이 본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통산 7승(국내 6승, 아시아투어 1승)을 거둔 박노석(48)이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KPGA 챌린지투어 상금왕 이상영(21)이 2위로 통과해 상위 랭커와 실력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9월 30일 64강 대진 추첨을 한 뒤 10월 1일 64강, 2일에는 32강전이 벌어진다.

3일에는 16강전과 8강전, 대회 마지막 날인 4일에는 4강전과 결승전(3-4위전)이 잇따라 열린다.

/연합뉴스

추신수 6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9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홈 경기에서 2번타자 우익수로 선발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이 상대한 투수 저스틴 벨런더와 맞대결에서는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시속 137km짜리 슬라이더를 받아쳤지만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3회에는 슬라이더에 속아 삼진을 당했고 5회에는 1루수 땅볼에 그쳤다.

하지만 1-7로 뒤진 7회말 1사 1루에서 좌완 블레인 하디의 커브를 밀어쳐 유격수 옆을 뚫는 좌전안타를 만들었다. 24일 오클랜드전부터 시작한 안타 행진이 6경기로 늘었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75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내달 4일 구례서 국제 철인 3종경기

37개국 573명 출전

국제 철인 3종경기 '아이언맨 70.3' 구례 코리아 대회(사진)가 다음달 4일 구례에서 열린다. 아이언맨 70.3 구례 코리아 대회는 세계 철인 3종 경기연맹(WTC)이 주관하는 극한 스포츠로, 참가 선수들은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8시간 20분 이내에 수영 1.9km, 사이클 90km, 달리기 21.1km 등 3개 종목에서 113km(70.3마

일)의 레이스를 펼쳐야 한다.

전남도와 구례군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7개국에서 573명의 철인(국내 360명·해외 213명)이 참여한다. 홍콩(46명), 미국(38명), 호주(18명), 프랑스(12명), 일본(10명), 남아프리카공화국(7명) 등 해외 선수들의 참가가 지난해(109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오영환·함연식 등 국내 외 프로선수 28명도 참여한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야구·가라테·서핑...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될까

내년 8월 최종 결정

야구-소프트볼과 가라테, 스카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등 5개 종목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 후보로 최종 추천됐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들 5개 종목을 정식종목 후보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추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IOC 총회를 통과한 '어젠다 2020'에 따라 올림픽 개최도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목을 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해 6월 초까지 총 26개 종목으로부터 2020년 올림픽 정식종목 포함 공식 제안서를 받았다. 조직위는 이 가운데 5개 종목을 최종 추천 종목으로 선정해 2016년 8월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